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 답안지

1번 답안:

제시문 (가)의 합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 구입 시 재화의 편익과 비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적 합리성을 이야기한다. 한편 제시문 (다)의 합리적 결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미래 전망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가능성의 나무를 통해 최소폭력의 길을 선택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합리성 모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합목적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에 의한 계산적 합리성을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의 경제적 합리성은 개인의 현재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다)의 정치적 합리성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번 답안:

최소폭력의 길이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데이터뱅크, 즉 가능성의 나무로부터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런데 인류가 이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는 데 두 가지 장애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인류가 이 길을 선택할 만큼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 최소 폭력의 길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가)를 보면 인간은 재화의 편익과 비용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합리적 존재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현재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기적 존재일 뿐 미래 세대의 행복을 고려하는 최소 폭력의 길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충동적, 모방적, 과시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과 욕망이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이며 비합리적인 존재이기에 최소 폭력의 길은 선택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의 나무를 통해 최소 폭력의 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최소 폭력의 길을 합리적 결정을 통해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최소 폭력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서 주인공 나는 석대의 불의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몰아닥칠 커다란 파장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석대의 질서를 수용하는 영악한 선택을 한다. 여기서 내가 선택한 석대의 질서란 다름 아닌 최소 폭력의 길이다. 그런데 최소 폭력의 길은 위험과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행복의 최대화를 노릴 뿐 처음부터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기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최소 폭력의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협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최소 폭력의 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나)에서와 같은 강압적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최소 폭력의 길은 인류가 그것을 선택할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며, 설혹 그것이 선택되고 실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